

'집값' 상승 주춤... '전셋값'은 5년來 최고 상승률

감정원, 7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전세매물 품귀에 임대차 3법까지 수급 불안정 서울 0.14% ↑ · 경기 0.24% ↑ 수도권 전세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반면 서울지역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세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실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차 3법 추진 등으로 전국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대란(2013~2015년)이 끝난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30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7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지난 주(0.06%)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까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 6일(0.11%)을 정점으로 3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 추세다.

담보·전세대출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6·17대책 후속조치 시

행, 세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보안대책과 7·22 세법 개정안 발표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판망세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0.06→0.02)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대폭 축소되며 보합에 가까워졌다.

마포·용산구(0.05%), 성동구(0.04%) 등 마·용·성 지역도 매수세가 둔화되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강북구(0.07), 노원·도봉구(0.06%) 등이나 관악구(0.06%), 구로·금천(0.05%) 등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은 상승세를 지속 중이나 서울 전반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임대차 시장은 매물 부족에 따른 전국적인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장마철 임대차 비수기에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금주 0.17% 올라, 지난주(0.13%) 대비 오름 폭이 확대됐다.

과거 '전세대란' 막바지에 수도

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던 지난 2015년 11월 2일(0.17%)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도 금주 0.14% 올라 지난 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57주 연속 상승세다.

강남구(0.24%), 송파구(0.22%), 서초구(0.18%), 강동구(0.28%) 등에서 학군, 정비사업 이주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매물 품귀 현상에 오름폭이 크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성동구(0.21%), 마포구(0.20%) 등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불안은 경기 지역으로 옮겨 붙었다.

금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0.24% 올라, 지난주(0.20%)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51주 연속 상승세다.

하남시(0.91%), 남양주(0.52%), 구리시(0.48%), 수원 권선구(0.48%), 성남 수정구(0.45%), 용인 수지구(0.42%), 고양 일산서구(0.33%) 등 교통 호재 지역이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공급이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 폭이 크다.

지방에서는 세종시(0.99→2.17%)가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이주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어 울산(0.34%), 대전(0.33%), 충남(0.22%), 충북(0.15%), 강원(0.12%), 경북(0.11%), 경남(0.08%) 등은 상승했다. 제주(-0.04%)는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오름세와 세종시 등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0.13% 올라 지난주(0.12%)보다 소폭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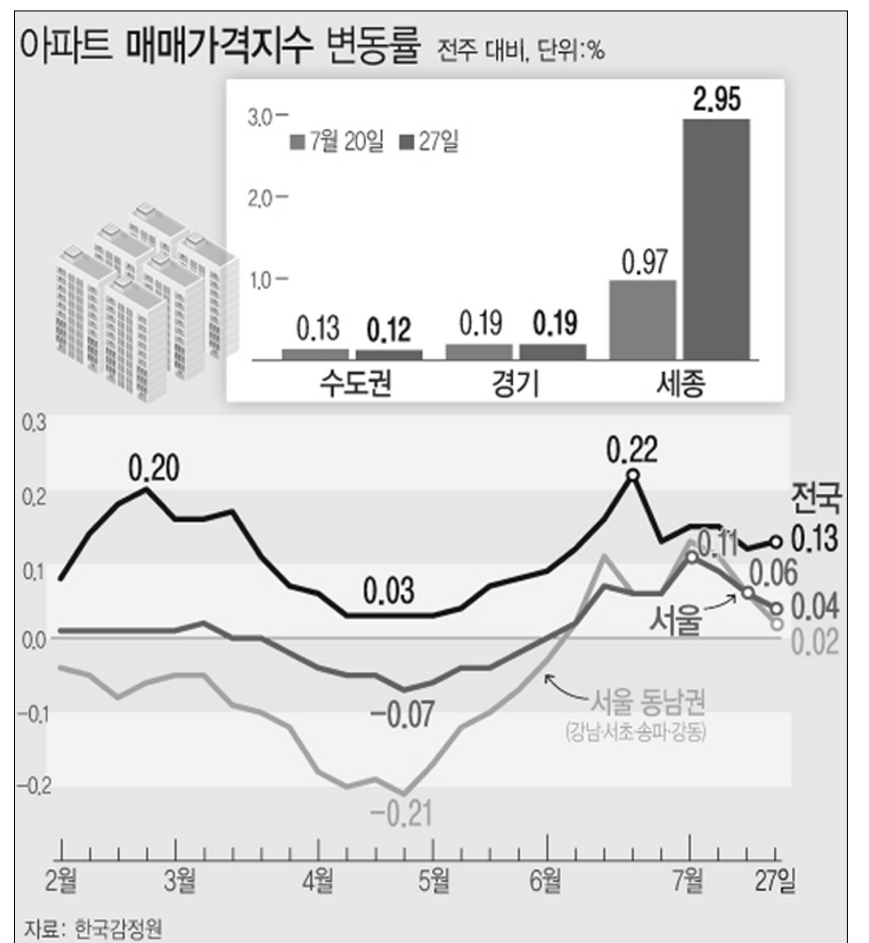
아직 하남시(0.48%), 광명시(0.40%), 고양 덕양구(0.38%), 용인 수지(0.32%)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0.19%를 기록,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공급 대책 발표가 예고되며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인천(0.05→0.03%)도 상승 폭이 축소되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12%로 지난주(0.13%) 대비 감소했다.

지방은 0.14% 올라, 지난주(0.12%) 대비 상승 폭이 커졌



다.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에 지역 내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세종시(2.95%)나 인근의 충남(0.20%), 대전(0.16%) 등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내 대규모 발생으로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

기를 겪었던 대구(0.13→0.15%)도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어 부산(0.12%), 경북(0.11%), 강원(0.08%), 충북(0.07%), 전남(0.06%)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제주(-0.03%)는 하락했다.

오유나 기자



포트넘 앤 매이슨, 국내 시장 진출 3주년 기념 텀블러 선보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영국 황실 흥차 브랜드 '포트넘 앤 매이슨'의 입점 3주년을 기념하는 텀블러를 선보이고 있다.

'전문건설 시공능력평가' 광주 삼지토건 · 전남 도양기업 1위

평가액 각각 1036억3500만 원 · 1549억200만 원

삼지토건(주)과 도양기업(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문건설 부문 시공능력 평가에서 광주·전남 각 1위를 차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이서길)와 전남도회(회장 오종순)는 30일 광주 1279개 전문건설업체와 전남 3601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삼지토건(주)과 도양기업(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문건설 부문에서는 삼지토건(주) 전남에서는 도양기업(주)이 각각 지역별 1위를 차지했다.

두 업체의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각각 1036억3500만 원, 1549억200만 원이다.

지난해 삼지토건(주)은 817억4500만 원, 도양기업(주)은 1726억100만 원으로 광주와 전남에서 1위를 기

록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직전 3개년간의 공사 실적과 재무상태, 기술 능력 등의 자료를 종합 평가한 금액이다.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 산정업무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시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9~11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내년 15조원 이상 발행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11월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할인율을 10%로 인상하고 인별 구매 한도도 100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차별 없는 발행과 판매를 독려한다.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은 계획물량 9조원 중 4조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은 4조원 중 1조

9400억원을 판매했다. 올해 계획물량 소진을 위해 8월 휴가철, 추석, 지역 가을 축제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및 발행을 권장한다.

또 9~11월(잠정)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현행 5% 할인율(지류 기준)을 10%로 올리고 인별 구매 한도도 50만원(지류 기준)에서 100만원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올해 13조원보다 늘려 15조원 이상 발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방역도 강화한다. 일상 속 축제 개최, 축제 장소 분산, 온·오프라인 축제 병행, 온라인 전환 등 코로나19에 맞는 다양한 축제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다.

축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 티켓 예매, 관람 시간 사전 예약제 등 축제장 내 분산 관람을 유도한다. 실외 운영 등 개별 축제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40억원을 투자해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 영상·기념품 제작, 온라인 축제관 등 홍보 마케팅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생동하는 혁신도시도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기존 공공기관 지역 연계 프로젝트 중 3대 분야 16개 우수과제를 선정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다른 기관 확산도 유도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공동 연구개발(R&D), 창업 공간 공유, 기술 이전, 판로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서선욱 기자

'초딩 입맛'은 가라...대세는 '할매 입맛'

'뉴트로' 바람 불어



가수 청하(24)는 지난해 MBC TV 예능물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약밥, 모나카, 양갱 등을 즐겨 먹는 모습을 공개했다.

매니저는 "청하가 할매니 입맛"이라며 맞춤 간식을 준비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청할매'로 통할 정도다. 20대 초반인데 "혹시 나이를 속인 거 아니냐"며 놀리는 이들이 많다.

요즘 식품업계는 '할매입맛'이 대세다. 주 소비층인 MZ세대

들은 흡인자, 인절미, 숙 등 전통 재료를 활용한 간식과 음료를 찾아다니고 있다. '뉴트로' 바람이 불면서 과거 유행한 제품을 새롭게 즐기는 추세다.

지난해 마라, 흑당 등 맵고 단 제품에 열광하던 모습과 대조된다. '초딩, 아재입맛'에서 '할매 입맛'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CJ제일제당은 '할매니얼'을 겨냥해 '비비고 흡인자죽'을 내놓았다. 할매니얼은 할매와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신조어다.

건강 관련 관심이 증가하고, 복고 트렌드 확대로 MZ세대들이 흡인자, 숙 등에 열광하는 현상을 반영했다.

검은깨와 약콩을 넣어 고소하면서도 달콤 짭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비비고 죽을 활용한 '아이스 디저트' 레시피도 선보인다. 여름철 색다르게 죽을 즐길 수 있는 법을 소개,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

자는 취지다.

'집콕' 콘셉트로 비비고 흡인자·단호박·통단팥죽으로 만든 구슬팥빙수, 아이스크림, 블랙큐브 라떼, 셰이크 등 종류도 다양하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비비빅'에 할매입맛을 입혔다. 1975년 출시된 후 40년 넘게 사랑 받으며 스테디셀러에 오른 제품이다.

2018년 선보인 '비비빅 더 프 라인 인절미'는 1년간 250만개 이상 팔렸다. 지난해 3월 선보인 '비비빅 더 프 라인 흡인자'는 올해 4월까지 800만 개를 팔아치웠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 관련 젊은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할매 입맛 제품들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전통 식 재료를 유행에 맞게 재해석한 상품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정 기자